

蘇聯의 에너지 정책방향

소련의 '89년도 에너지 정책방향은 石油資源의 계속적인 증산과 함께 天然가스 중심의 에너지 수급구조 확립과 石炭자원 수출을 위한 시장다변화에 치중될 것으로 보인다. 즉, 소련당국은 수출품으로서의 石油資源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 石炭과 原子力 發電을 증대하는 한편, 선진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에너지 비효율적 경제 체질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소련의 石油자원은 그동안 주요 외화수입원이 되어 왔다. 그러나 '85년 총외환수입중 石油자원수출 비중이 65%를 차지한 이후, '87년에는 50%이하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련 당국은 급격한 石油수출수입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신규油田 개발과 기존油田의 노후화 된 시설개수를 통하여 石油증산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石油發電을 天然가스와 原子力 發電으로 전환하는 등 국내 石油소비 억제정책도 계속 추진하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련은 풍부한 天然가스 매장량을 기반으로 하여 天然가스 중심의 에너지 수급구조 확립에 더욱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즉, 1차에너지 총소비중 天然가스 비중을 '87년 37%에서 '88~89년 기간에 40% 이상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소련은 계속적인 天然가스 증산을 위해 西시베리아지역의 가스田 지대에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하는 동시에 생산된 天然가스의 對 西方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기존의 수출용 파이프라인 수송망을 종합 정비할 계획이다. 소련은 石炭수출증대를 통하여 石油수출수입 감소에 따른 외환부족문제를 일부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련은 國際石油市場에서 수요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수출용 石炭의 증

산을 위해, 西시베리아와 우크라이나지역의 주요 炭田 지대에 현대적인 설비를 도입하는 등 투자를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련당국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영석탄수출 기관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국제시장에서 신속성있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地方石炭生産業者들에게 독립적으로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고, 이윤추구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결과 石炭生産이 증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소련은 국내 石油發電시설을 原子力發電으로 전환함으로써 石油수출량 확보를 통하여 서방외환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聯邦共和國 현지 주민들의 原電建設 반대여론으로 인하여 소련당국의 原電개발계획이 수정되고 있다. 즉, 소련당국은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감안하여 대도시와 하천지역에는 原電건설을 중지하고, 기존 原電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투자를 증대해 갈 계획이다. 소련은 장기적으로 原電이 국가의 주요 에너지原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 전망하고, 原子力 發電에 따른 안정대책과 기술개발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연구원, 에너지동향〉

소련의 1차에너지 생산 및 계획

(단위: 백만TOE)

에너지원	1970	1980	1985	1986	1987	1990(計劃)
石油	353	603	595	615	624	635
天然가스	163	360	520	555	588	688
石炭	303	334	308	318	322	360
水力	32	42	49	49	50	51
原子力	1	17	38	37	46	73